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양 은 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치료적 리코더 합주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이 승 민

치료적 리코더합주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양 은 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이 승 민

인 준 서

이승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3년 11월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부천시 W구에 위치한 보호관찰소 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으로 실험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으로 총 14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14명은 평균 4번 정도 소년원 수감생활을 하였고, 중학교 중퇴자가 대부분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2014년 10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1회에 60분씩 주 2~3회, 10회기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음악치료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치료적 리코더합주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nn-Whitney 검정과 Wilcoxon의 부호순위 검정을 시행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음악치료의 프로그램 구성은 리코더합주 중심으로 음악적 환경 안에서 관계형성, 음악적 변화와 난이도에 따른 과제수행 및 문제해결, 자신감과 책임감 향상, 성공적인 음악경험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사전에 비해 사후 자기효능감 점수가 23.6점 증가하였고, 문제해결력 점수는 2.8점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이러한 결과는 치료적 리코더 합주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도구임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가설	5
3. 용어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청소년 범죄	7
1) 청소년 비행과 보호관찰	7
2) 청소년 범죄의 발생 원인에 관한 이론	8
2.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11
1) 자기효능감	11
2) 문제해결력	17
3. 기악 합주와 리코더 합주	21
1) 기악 합주	21
2) 리코더 합주	24
III. 연구방법	29
1. 연구대상	29
2. 측정도구	29
1) 자기효능감 척도	29
2) 문제해결력 척도	30
3. 연구설계 및 절차	31

1) 연구설계	31
2) 연구절차	32
4. 프로그램 목표 및 구성	32
1)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의 목표	32
2)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 구성	33
3)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 내용	33
5. 자료 분석	36
IV. 연구결과	37
1. 두 집단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 대한 동질성 검정	37
2. 가설검증	38
V. 결 론	50
1. 결론 및 논의	50
2. 제언	52
참고문헌	53
ABSTRACT	63
부 록	65

표 목차

<표 I-1> 아노미이론 적용 유형	9
<표 III-1> 자기효능감 척도 문항 구성	30
<표 III-2> 문제해결력 척도 문항 구성	31
<표 III-3>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	32
<표 III-4> 세션구성	33
<표 III-5> 치료적리코더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	34
<표 IV-1>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의 동질성 검정	37
<표 IV-2>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 동질성 검정	38
<표 IV-3> 자기효능감 평균분석	39
<표 IV-4> 자기효능감 Mann-Whitney U 검정	40
<표 IV-5> 자기효능감 Wilcoxon 대응 검정	41
<표 IV-6> 문제해결력 평균분석	42
<표 IV-7> 문제해결력 Mann-Whitney U 검정	43
<표 IV-8>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 평균분석	44
<표 IV-9>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 Mann-Whitney U 검정	45
<표 IV-10> 문제해결력 Wilcoxon 대응 검정	47
<표 IV-11>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 Wilcoxon 대응 검정	48

그림 목차

<그림 IV-1> 실험·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39
<그림 IV-2> 실험·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자기효능감 점수 변화 ...	40
<그림 IV-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문제해결력 사전·사후	42
<그림 IV-4> 실험·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문제해결력 점수 변화 ...	43
<그림 IV-5> 실험·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문제해결 하위 점수변화 ·	4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발달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성장해가는 단계이다. 이러한 발달과정 단계에서 오는 가치관의 혼란과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사회의 급속한 사회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비행 또는 범죄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강창빈, 2007).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보호관찰 제도를 시행하여 왔는데, 이 제도는 일시적인 범법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은 사람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보내는 대신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명령을 통하여 사회복귀 촉진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12개의 보호관찰소와 6개의 지소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처음에는 소년 범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현재는 성인 범죄까지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이희정, 2006). 최근 보호관찰 사건 현황을 보면 2008년 93,274건, 2009년 98,961건, 2010년 101,92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의 훈방 조치를 받고 귀가 하는 학생들까지 포함한다면 규모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김혜경, 2007; 범죄예방정책국, 2011). 보호관찰 청소년의 범죄 행동에는 음주, 절도, 폭행, 불법낙태, 본드(inhaler)나 가스를 포함한 약물경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관찰 이후에도 보호 받지 못한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의 부적응, 진로 문제 그리고 자립의지 부족 등으로 가출 및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부족과 아무런 노력 없이 원하는 것을 탈취하려는 욕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전익진, 2014;

이호동, 2010; 최광성, 2006).

Bandura(1986)는 청소년들이 겪는 갈등과 도전과제, 그리고 위협 요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지각된 자기효능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김혜영, 2001, 재인용). 또 Bandura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 및 도전과제나 위협 요소로부터 회피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갖는 반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 오면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만 하려고 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격성을 표출하고 정신적으로도 부정적 사고를 갖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공의 경험이 자기효능감을 창조하고 강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는데,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적합한 사고와 행동을 통해 올바른 자기조절 방법을 획득한다고 하였다(Bandura, 1995; 윤운성, 2004). 다시 말해, 올바른 자기효능감을 지닌 청소년들은 갈등이나 도전포기, 부정적 감정 등으로부터 오는 비행 활동이나 위협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오윤경(2005)은 성공적인 경험이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8회기의 리코더 합주를 시행하였으며, 리코더 합주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리코더는 다른 관악기나 현악기에 비해 소리 내기가 쉽고 휴대하기도 편리하여, 초등학교에서 음악시간이나 특별활동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악기이다. 또 리코더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테너, 알토, 소프라노로 나뉘어져 있어 풍부한 화음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임청수, 2010). 합주활동은 개개인의 연주 실력도 중요하지만 다함께 곡을 완성해 가는 과정 안에서 자신의 순서를 인지하고 다른 사람의 순서를 기다리는 과정을 통

해 근면성, 사교성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등 상호작용의 기회를 통하여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집단 안에서는 하나의 자기 표현 수단이 되기도 하고 주어진 자기 파트의 책임을 다 할 때에는 소속감, 성취감, 책임감, 집중력 향상 등의 기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기조절의 밑거름이 된다(김선하, 2009; 김수민, 2006; 임청수, 2010). 또한 이 그룹의 학생들이 더 나은 연주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인지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은 연주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기 위한 자기조절의 실천이며, 자발적인 참여와 도전은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여성혜, 2010).

리코더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교육 목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나 리코더 지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많다. 김아진(2009)과 홍자선(2008)의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리코더 지도방법 연구를 통해 대상의 음악적 흥미도가 높아졌으며, 리코더 연주능력 향상과 새로운 관심과 애착이 생겼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 조재민(2013)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조성의 변화를 이해하고 리코더 악보를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으며, 리코더 중주 또한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리코더 연주활동이 심리적·신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는 대표적으로 조미나(2011)의 7개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조미나(2011)는 리코더 연주활동이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황영량(2000)의 연구에서는 리코더 레슨활동이 ADHD아동의 과잉 및 충동행동과 부주의 행동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ADHD아동의 또 다른 연구, 이재연(2011), 최재익(2009), 김은강(2005)의 연구에서는 리코더 연주활동이 ADHD아동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주의산만 행동과 충동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임은정(2004)은 리코더를 이용한 음악활동

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학생의 자기존중감과 자신감, 그리고 사회성 증진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밝히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성주(2007)의 연구에서는 리코더 연주가 뇌졸중 환자의 노력성 폐활량과 호흡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재 보호관찰제도는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긍정적 자아를 재정립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강 명령은 전문가에 의해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 또는 위탁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단위 강의는 교육자나 저명인사들을 초빙하여 실시되지만 강좌내용의 문제, 대상자의 문제, 전문성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어 그 효과를 입증하기는 어렵다(이희정, 2006). 결과적으로 보호관찰제도는 부정적 자아를 탈피하여 내면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비행을 교정하는 기관으로 보기에는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송지영, 2005).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학업 능력 향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또 리코더에 관한 연구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비행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김명환, 한길환(2011)의 연구에 의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현재 교도소나 소년원에서는 개화와 인성교육의 목적으로 합창단과 합주단, 미술, 연극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연구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주입식 강의를 아닌 성공적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향상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연구로서,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보다 나은 자기조절을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1-1.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자기효능감 척도 점수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1-2.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자기효능감 척도 점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가설 2-1.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문제해결력 척도 점수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2-2.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문제해결력 척도 점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3. 용어 정의

1) 보호관찰

범죄예방정책국(2011)은 보호관찰에 대해 "범법자를 교도소나 기타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 및 갱생시키는 제도"라고 정의

했으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그리고 소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제외한 소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범죄로 정의했다.

2) 자기효능감

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미래의 상황을 다루는데 필요한 행동 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 한다”고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고 여러 과제들을 두려운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Bandura, 1995; 윤운성, 2004).

3) 문제해결력

허남조(2006)는 문제해결을 “주어진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그 해결 방법을 구하는 것으로, 이전에 학습한 규칙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학습을 창출하는 인지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긍정적인 인지전략으로 정의한다.

4) 리코더 합주

합주는 두 사람 이상의 중창 또는 중주를 의미하며, 하나의 성부만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성부로 나뉘어 각각 맡은 성부를 연주하는 활동이다(사전편찬위원회, 1991). 본 연구에서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리코더를 사용하여, 세 개의 성부를 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범죄

1) 청소년 비행과 보호관찰

범죄 청소년의 확대 개념인 비행청소년은 크게 범죄, 촉법, 우범소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뉜다. 기존의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죄의 연령을 12세에서 20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규정하였으나, 범죄의 저 연령화로 인해 2007년 개정된 소년법에서는 10세부터 19세 미만으로 규정하였다. 범죄소년은 14세에서 19세 미만의 형사법령 위반 및 형사책임이 있는 청소년을 말하고, 촉법소년은 10세부터 14세 미만인 청소년으로 형사법령은 위반하였지만 형사책임은 없는 청소년이다. 우범소년은 10세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법령은 위반하지 않았지만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 범죄는 우범소년을 제외한 범죄소년, 촉법소년을 의미한다. 청소년범죄의 원인에는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의 도시화, 가정불화, 학교 부적응, 유해약물 오용·남용, 성 일탈, 유해미디어 이용 등이 있으며, 범죄는 조폭화, 집단화, 누범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 등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김준호 외, 2009).

이러한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국가는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게 되는데, 형량에 따라 소년교도소, 장기소년원, 단기소년원,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린다. 여기서 소년보호관찰이란 범법 행위를 한 청소년들을 소년원이나 기타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 보호관찰관 또는 범죄예방위원의 지도 또는 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소년법의 소년보호처분 중 4호 처분인 단기보호관찰은

1년, 5호 처분인 장기보호관찰은 2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시행중이다. 보호관찰 제도는 지역 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범죄자가 지역 사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응을 꾀하는 사회화 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한국소년법학회, 2006). 현재 보호관찰 제도는 1983년 부산지방검찰청 관내 일부 가석방 자에 대한 시험실시를 시작으로 1989년 국내에 정착하여, 현재 16개 보호관찰소와 지소 28개소로 총 44개소가 있다. 지도·감독이라 함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사회적 규율과 준수 사항 등을 지키도록 하는 활동으로, 접촉을 통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행동과 환경을 관찰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취를 취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최근 보호관찰 사건의 현황을 보면 2008년 93,274건, 2009년 98,961건, 2010년 101,92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범죄예방정책국, 2011), 보호관찰 처분 뿐 아니라 훈방조치를 받고 귀가하거나 재범, 위탁소년 보호시설, 소년원까지 더한다면 범죄의 규모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김혜경, 2007).

2) 청소년 범죄의 발생 원인에 관한 이론

(1) 아노미 이론

무질서, 무법의 뜻을 지닌 아노미는 실제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올 때 일어나는 과도기나 혼돈의 상태를 뜻한다. 머튼(R. Merton)은 아노미 이론으로 미국사회의 하위계층 범죄와 비행에 대하여 설명했다. 경제적 부와 성공을 목표로 모두가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와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 하위계층은 좌절을 겪고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구조적으로 성공과 부에 가까워질 수단이 없고 기회마저 차단되어 있다는 점이 범죄와 비행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아노미 이론은 하위계층이

겪는 긴장과 좌절의 연속으로 다른 말로 ‘긴장이론’(strain theory)이라 부르기도 한다(김준호 외, 2009).

아노미 이론은 성공이나 경제력 등의 문화적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수단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동조형으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집단이고, 둘째는 혁신형으로 문화적 목표는 원하지만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 하는 집단이다. 셋째, 의식형은 문화적 목표에 대한 과욕 없이 현재를 만족해하며 관습과 일정 법규를 지키는 집단이다. 넷째, 도피형은 추구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과 수단 모두를 거부하는 집단으로 대표적으로 부랑아 또는 약물중독자가 있다. 마지막 다섯째는 혁명형으로 기존의 목표와 수단을 거부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 목표와 새로운 수단을 제시하는 집단이다. 이 중에서 하위계층의 적응방식이며 범죄와 비행에 관련된 유형은 혁신형과 도피형이다(조준현, 1999). 아노미이론의 적응 유형에 대하여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I-1> 아노미이론 적응 유형

유형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동조형(Conformity)	+	+
혁신형(Innovation)	+	-
의식형(Ritualism)	-	+
도피형(Retreatism)	-	-
혁명형(Rebellion)	±	±

(2) 차별접촉이론

서덜랜드(E. Sutherland)가 1939년에 발표한 차별접촉이론의 주된 내용은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학습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범위반에 대하여 호

의적인 사람과 접촉하고 상호작용 하게 되면 청소년들도 범위반에 그만큼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비행친구와 더 많이 어울린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비행행동을 할 확률이 더 높으며, 부모, 형제가 범위반을 일삼는다면 그 청소년도 범죄나 비행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이성식, 2011). 다시 말해, 범죄행위 학습은 법규를 준수하는 집단에 속해있는지, 아니면 비행집단에 속해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행위뿐만 아니라 동기, 욕구, 합리화, 태도까지도 학습되어지며, 이는 언어, 행동,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이처럼 차별접촉이론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원인을 법률위반에 호의적인 태도를 지닌 타인과의 접촉으로 보고 있으며, 범죄행위 학습의 강도는 타인과의 만남 횟수, 얼마나 오래 만나왔는지, 그리고 친밀감에 따라 달라진다(임상곤, 2004).

(3) 낙인 이론

1960년대 미국에서 크게 발전한 낙인이론은 범죄과정론에 속하는 내용으로 비행청소년보다는 사회, 경제 그리고 사법제도를 비판하는 이론이다. 누가, 어떠한 비행을 하는가보다는 누가, 그들을 비행자로 규정하고, 또 어떠한 행동이 비행으로 규정되는가에 주목한다. 낙인이론가들은 사법기관에서 어떠한 행동을 비행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가 비행이 된 것이지, 특별히 어떤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규정된 비행이라는 틀에 속하여 낙인찍힌 아이는 훗날 범죄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이성식, 2011). 낙인이론가들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오히려 사법기관의 대응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냥 놔두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법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낙인을 찍음으로 인해 청소년의 비행 행동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 청소년이 퇴학을 당하고 선도 기관에 불려가 매를 맞거나 훈계를 받는 낙인이 아니었다면 성인이 되어서 그

양 술을 마시고 담배만 피웠을 텐데, 학창시절의 낙인으로 인해 조직폭력배에 가입하거나 성인범죄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낙인이 찍히면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고 누군가의 아들이나 어느 지역의 사람, 그리고 누구의 제자 등등과 상관없이 비행자 혹은 범법자로서의 지위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낙인 된 비행청소년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비행자의 지위대로 행동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산층의 아이들은 훈방조치 되고 하층의 아이들은 체포되고 처벌 받는 사법기관의 차별적 대응 역시, 낙인 된 비행청소년의 비행을 더욱 악화시킨다(김준호 외, 2009).

2.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1) 자기효능감

1960년대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사회 변동 속에서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인간의 성장과정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해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김석권, 2011).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효능기대와 결과기대, 이 두 가지 기대를 통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효능기대는 자신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기대이며, 결과기대는 행동이나 일을 마치고 난 후 확실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어떠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더라도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능기대가 없기 때문이고, 반대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결과에 흥미를 느끼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효능기대는 있지만 결과기대가 없는 경우이다. 또 자기효능감은 자

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이나 지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신념과 기술 등을 갖고 수행했을 때 결과가 유발된다. 즉, 효능기대와 결과기대가 모두 존재할 때, 어떠한 행동이 유발되고 그 결과에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행동 중의 노력, 인내, 사고패턴, 각성, 투자 시간 등에 영향을 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행동과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김용구, 2014).

또한, 자기효능감은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등의 하위 기술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배합되고 조직화되어 있는 생성적인 능력이다. 이러한 하위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최상의 수행을 할 수 있고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위기술을 적절한 행동과정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비슷한 하위기술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떤 일을 수행하였을 때, 꼭 비슷한 결과를 얻는다고 볼 수 없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기술의 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기술들을 적절히 배합할 수 있고 무언가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Bandura, 1997;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1999).

Bandura는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 및 정서적 상태”와 같은 네 가지 근원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근원 중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원은 첫째로, 성공경험이다. 실패의 경험은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성공적 경험은 효능감을 형성시킨다. 인간의 학습은 어려움과 장애를 딛고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탄력성 있는 효능감을 지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실패를 성공의 경험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러한 성공경험은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자기 조절적 수단을 만들어 낸다. 한편, 본인의 능력이 제한 되어있음을 스스로가

인지한 상태에서 과제수행에 실패하였을 때는 자기효능감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 실패하였더라도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는 과제의 난이도와 불가피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 노력의 정도를 고려해야한다. 반대로, 실패하였더라도 잘못 수행한 부분에 대해 재평가하고 실패원인을 분석하는 행동은 자기효능감이 오히려 향상된다(Bandura, 1997;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1999; 전익진, 2014).

둘째는 대리적 경험이다. 타인의 성공적 경험을 관찰 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리적 경험은 정보제공, 자신감 향상, 상황에 대한 예측 및 통제가 가능하다. 모델링(modeling)을 통한 비교적인 정보 습득은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자기개념을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찰자가 자기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관찰자는 노력약화와 판단저하로 자기효능감이 감소하게 된다(Bandura, 1997;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1999).

Brown & Inouye(1978)는 모델(model)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되고자하는 모습을 지닌 유능한 모델을 능동적으로 찾는다. 동경의 대상이 되는 모델은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에 의해서도 효능감을 제공하며, 관찰자는 모델링을 통해 스스로의 자기 개발을 안내하고 동기화 시킨다. 관찰자와 모델의 유사성이 클수록 모델의 성공과 실패는 더욱 설득적이다. 만약 관찰자 본인이 모델과 자신을 매우 다르게 본다면, 모델의 행동 및 신념, 그리고 결과에 의해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모델링과정을 거쳐 해결점에 도달 했을 때, 모델들이 사용하였던 행동전략을 추론하고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사고하는 기술 및 행동 등의 적용 방법 등을 배운다. 관찰자가 이러한 법칙을 배우게 되면, 각자의 새로운 행동방법과 적용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하며 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Bandura, 1997;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1999).

손쉬운 수행과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숙련된 모델을 관찰하는 것 보다, 끈기 있게 노력하여 결실을 맺는 모델을 봄으로써 자기효능감을 훨씬 더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을 대처모델이라고 하며, 행동 단계에서 시작은 미미하지만 단호한 대처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델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 확신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은 대처모델과 본인이 유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실패나 부정적 의미를 줄일 수 있다(Meichenbaum, 1971). 이 모델은 인내가 결국 성공을 낳는다는 예를 보여주며, 실패나 부정적 의미를 줄일 수 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장애나 역경으로 가득 차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여건 하에서 대처모델링은 자기효능감 회복에 더욱 공헌한다. 하지만 대리적 경험을 통해서만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지속되기 힘들고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수행에 앞서 다른 사람의 성공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해야 하며, 비교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오인수, 2002).

셋째는 추구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언어적 설득이다. 언어적으로 설득된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 보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유지한다. 언어적 설득은 자기 확신적인 신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결과를 기대할만한 행동과정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다. 또한 사람이 성공하기에 충분할 만큼 노력하게 하고 기술과 자기효능감의 발달을 촉진한다. 반대로 결과를 기대할만한 행동과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자기 확신적인 신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설득자를 불신하게 하고, 나아가서 자기능력에 대한 신념을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다(Bandura, 1997;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1999).

Schunk(1984)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평가적 피드백은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킨다고 하였다. 과장된 피드백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능력이 향상되었

다는 정도의 피드백도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며, 초기단계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 또한, 자기효능감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은 효과적인 기술 수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는 언어적 설득만으로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유능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상승시키고, 보완해야하거나 필요한 기술을 모델링하고, 성공에 앞서 활동을 구조화하고, 계속된 진보에 대해 꾸준한 피드백을 제공 해야지만 효능감이 가장 잘 주입될 것이다(Bandura, 1997; 박영신, 김의철, 2001).

넷째는 개인의 생리적 상태 및 정서적 상태이다. 자기효능감에서 생리적·정서적 상태는 지구력과 체력을 요하는 수행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체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한 정서, 그리고 부정적인 요인 등을 줄여야만 올바른 자기효능감을 형성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체적·정서적 반응의 강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각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Bandura, 1997;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1999).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 각성을 수행에 있어서 에너지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 각성을 자신의 단점, 즉 최악 인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불안이나 부정적 정서를 개인의 약점과 단점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보는 사람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낮다. 유명한 배우가 공연을 앞두고 느끼는 긴장과 불안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느끼는 긴장과 불안을 개인적인 결함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적인 반응으로 생각한다(Bandura, 1995; 윤운성, 2004; 이희진, 2009).

한편, 낮은 자기효능감과 청소년들의 범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청소년

들은 사춘기뿐 아니라 교육적 변화와 환경적 변화를 겪는다. 초등학교 이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직업이나 대학입시에 관련된, 한파디로 진로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으로 나뉜 학교로 가게 된다. 새로운 사회의 구조적 환경 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매 시간 바뀌는 교사들과 직면하게 되는데 그들은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관계, 위치 등을 재형성 해야 한다. 이러한 적응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사회적 평가에 민감해지고, 스스로에게 덜 확신하게 되며, 자기 동기화가 감소하게 된다.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사춘기적, 사회적, 학업적 변화라는 고립감 속에서 낙담하게 되고 낮은 사회성과 부족한 학업 수행 등으로 자신감이 결여되고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문제를 보인다(김선미, 2005). 자기효능감과 청소년의 이탈과 범죄행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졌다. 김의철, 박영신(1999)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이탈행동과 자기효능감의 상관을 구한 결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이외에도 자습효능감과 주위사람 기대 일치효능감과도 부적상관이 있었다. 박영신, 김의철(2000)의 분석에 의하면, 폭력 가해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낮았다.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해결 능력이 낮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낮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 일수록 비행과 범죄행동의 빈도가 잦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을 기회에 회피하거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집단과 사회에서 적응 하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며,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갈등과 불화를 겪게 된다(안명선, 2008). 또한 자신에 대한 포기과 충동적 행동 반응이 나타나게 되며, 사회적 기능 수행을 악화시키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되어 재 이탈과 재 비행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김인숙, 2014). 따라서 청소년기의 지각된 높은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일에 직면 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

인 힘이 될 수 있고 요구되는 학습, 교우관계, 진로탐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현주, 2012).

한편, 박영신, 김의철(2001)은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위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 여기서 위탁청소년이란 컴퓨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이나, 부모의 방임으로 갈 곳이 없거나 학대 받는 아이들, 일탈행동으로 학교에서 의회한 청소년 등이다. 이 두 그룹을 비교해본 결과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위탁청소년으로 이루어진 그룹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6)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과 일반 청소년의 심리·행동 특성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는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하게 된 동기로서 ‘상대방의 잘못’ 또는 ‘운이 없어서’ 그리고 ‘억울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판별분석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낮고 도덕적 이탈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곽금주, 김의철, 박영신(1999)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 일수록 문제행동이나 일탈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강진령, 유형근(2000)은 낮은 자기효능감과 폭력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학교폭력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역시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집단 따돌림 피해학생의 특징은 “열등감을 느끼고 평균이하의 자긍심을 가지며 자신을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이춘재(1999)는 반대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은 대체로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동에 대한 절제와 자기조절이 이루어 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2) 문제해결력

문제 또는 문제 상황은 더 나은 상태를 위해서 해결해 나가야할 효과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일상 속 과제이다. 문제 발생은 개인적 특징이나 환경적 특

정으로만 분류되지 않고 사람과 요구되는 두 가지 요소(개인, 환경)에 대한 불균형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에는 갈등, 기술 및 자원부족, 예측 불가 등이 있다(이광희, 2002).

D'Zurilla & Goldfried(1971)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인지 행동 과정”을 문제해결이라고 정의 했다. 문제해결은 문제 상황 개선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의도적 활동이다. 또한, 수행능력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학습의 과정이기도 하고, 문제에 대한 대처전략이기도 하며, 한편으론 자기 통제법이기도 하다.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행동 과정은 다양한 해결책을 생성 해낼 수 있고, 생성된 여러 해결책 중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문제해결은 대인관계 문제해결, 개인 문제해결, 응용 문제해결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어 왔는데 현재,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는 자연적 사회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초점으로 사회적 문제해결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인지나 정서와 같은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지역 사회 문제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해석된다(D'Zurilla & Nezu, 2006; 박권생, 최이순 2008).

D'Zurilla & Nezu(2006)는 문제해결과정으로 정향반응과 문제해결기술, 그리고 기본적인 인지 능력을 설명했다. 첫째, 정향반응은 문제 상황에 처음 직면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인지 정서적 반응이다. 문제 상황을 문제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아니라고 무시해 버릴 것 인지는 인지 정서형 스키마에 따라 결정된다. 스키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느낌 및 신념과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과거의 문제 해결 경험을 토대로 나온다. 따라서 정향반응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문제 해결을 촉진 하는 긍정적 정서를 유발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회피할 것인지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둘째, 문제해결 기술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목표 지향적 기능이다. 예를 들자면 문제의 정의를 내리고, 해결방법을 모색한 후, 결정을 내리고 해결시도 후에 해결성과를 얻는 이러한 구체적인 연쇄적인 행동 기능들이 포함 된다. 연쇄를 구성 하는 각각의 기능들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기능이 강화되고 결국에 모든 기능이 강화되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셋째는 기본적 인지능력이다. 문제 해결에 앞서 중요한 기본 인지 능력은 인과적 사고, 결과적 사고, 대안적 사고, 수단-목적 사고, 관점 전환이다. 인과적 사고는 어떠한 문제 상황인지 파악하고 어디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할지 추론하고 사실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결과적 사고는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능력이며, 대안적 사고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는 능력, 수단-목적 사고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무언가를 수집하고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관점 전환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다(D'Zurilla & Nezu, 2006; 박권생, 최이순, 2008; 김경희, 1998).

또한 D'Zurilla & Nezu는 사람들의 문제수용태도를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나누고, 문제해결 스타일은 합리적과 충동적, 그리고 회피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문제수용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의 경향은 문제를 긍정적 도전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문제해결 효능감을 높이 생각하고, 문제는 반드시 좋게 해결 될 것이라 믿는다. 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회피하지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한다. 반면 부정적인 경향은 문제 상황을 심리·사회적으로 위협하는 사건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문제해결 효능감이 낮다고 생각하며, 문제 상황과 마주하면 쉽게 좌절하고 혼란을 겪는다(D'Zurilla & Nezu, 2006; 박권생, 최이순, 2008).

문제해결 스타일에서 합리적 문제해결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일컫는데, 문제의 정의를 내리고 해결책을

모색한 후, 해결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문제의 정의를 내리는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며, 장애물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해결의 목표를 설정하는 등 문제의 이해를 요구한다. 해결책을 찾는 단계에서는 기존의 비슷한 문제의 해결책을 토대로 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단계를 말하며, 가능한 많은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해결책 선정 단계는 긍정적인 결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단계로, 생성된 해결책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해결책 실행 단계에서는 실제 문제 상황에서 선정한 해결책을 실행한 후, 원하는 결과가 달성되었는지 그 효과를 확인한다. 충동적 스타일은 문제해결 전략을 적용하려하지만 시도의 폭도 좁을 뿐 아니라, 충동적이고,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 버리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결책을 찾는 단계에서 소수의 대안만 고려하며, 처음 떠오르는 대안만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해결책 선정 단계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경솔하고 부적절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특징이다. 회피형 스타일은 문제에 직면하기보다 기피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으며, 비활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문제해결의 결과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이유미, 김정희, 김동원, 2009; D'Zurilla & Nezu, 2006; 박권생, 최이순, 2008). 한편, 문제해결능력은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요소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하며, 자살관념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충동적이거나 회피경향이 적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공격 및 충동행동을 보이고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회피 또는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이재경, 2000).

범행이나 공격행동, 그리고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이들 행동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Greening(1997)은

비행청소년 집단과 일반청소년 집단의 문제해결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비행청소년 집단은 가상으로 제시된 문제에 대해 비효과적인 해결책을 구성하고 해결책을 찾는 소요시간 또한 길어졌으며, 더 크게 짜증을 낸다고 하였다. Jaffe & D'Zurilla(2003)는 비행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간의 문제해결능력을 비교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보다 문제를 비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Murrin 등(2002)은 영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공격행동 간의 관계를 비교하였는데, 문제해결능력이 낮을수록 공격행동이 더 심하였고, 충동성이 강할수록 문제해결능력이 저조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정현숙(1994)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대인 문제해결 사고능력과 자아통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아통제가 낮은 청소년들은 문제해결에 앞서 수단-장애-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문제해결 방안수가 많고 해결능력도 대체로 높다고 하였다. 또 전윤식, 강영심(1987)은 대인 문제해결능력이 청소년 비행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산시 청소년 6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인 문제해결 능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정도가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비행청소년들은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악합주와 리코더 합주

1) 기악 합주

가창은 제한된 음역과 성량, 그리고 표현기법에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기악은 풍부하고 다양한 색채를 구사하고 보다 넓은 음역의 음악을 창조 할 수

있다. 또한 메카닉한 특성과 풍부한 악상의 구현으로 좀 더 자유롭고 무한한 음악세계를 개척 할 수 있다. 기악활동은 학생들이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자기실현 및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며, 연주기능 향상이라는 장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음악교육에서도 중요한 활동으로 여겨왔다(엄미혜, 2013).

정은나(2006)는 가창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중학교 남학생들은 변성기로 인하여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목소리와 불안한 발성을 지니고 있어 악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화음과 음악적 조화를 느끼게 해줌으로써 음악 활동에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백덕규(2012)는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거나 내성적인 학생들도 기악합주라는 집단적 음악활동을 통해 자기표현과 창조적 음악활동의 밑거름이 된다고 하였다. 강희숙(2004)의 연구에 의하면 기악합주는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기대할 수 있고, 소 근육 발달과 청·감각 발달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리듬감, 조성감, 화음감 등 음악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악합주는 어린 학생들부터 성인까지 참여 할 수 있는 활동이고 앙상블과 동호회 등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악합주의 효과는 첫째, 보다 많은 음악 학습의 기회를 제공 받는다.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악보 읽기와 음악 표현 능력, 그리고 음악을 듣고 평가하거나 자신의 연주와 비교 할 수 있는 음악적 이해와 청감을 가지게 된다. 둘째,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배양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협동으로 연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에게 의지할 수 있으며, 또는 동료에게 기대를 갖게 되는 등의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협동심을 길러주게 된다. 셋째, 학교 합주단은 학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내 합주단체는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며, 건전한 취미 여가활동으로 심신발달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적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의 조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박인수, 2004; 이미연, 2005; 엄미혜, 2013). 넷째, 학생들이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여 추상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와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 준다. 또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과 소속감 및 협동심을 길러주며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Kagan, 1992; 기독교등학교협동학습연구모임, 1999).

음악치료에서의 기악합주는 타악기와 건반악기, 리듬악기, 가락악기 등을 사용하여 숙련된 기능이 요구되는 악기와 그렇지 않은 악기들을 학생들에게 적절히 분배할 수 있다. 악기의 선택이 힘든 학생들에게는 탬버린이나 카바사, 큰북 등 단순한 리듬 위주인 악기를 부여하고, 오르간이나 멜로디언, 그리고 리코더와 같은 주법연습이 필요한 악기는 연주 가능한 수준의 아이들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리듬악기의 활용은 긴장 이완의 수단이 되고 신체 운동의 발달 및 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이선미, 2004). 기악합주활동의 대상이 유아나 장애를 가진 아이라면 일어서기, 앉기, 뛰기, 손뼉 치기와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복잡한 동작까지 포함 된다. 리듬은 동작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동기와 에너지를 제공하고 멜로디나 박자는 의사소통이나 지시와 같은 비언어적 수단을 제공한다(이주연, 2006).

염미혜(2013)는 기악합주가 정인지체 학생의 사회 정서행동과 운동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는데, 자아의식과 대인관계 향상, 그리고 대근육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숙달된 기술을 요구하는 악기연주가 불가능한 학생들에게는 불고, 두드리고, 흔들기 같은 초기 단계를 거쳐 무율 타악기에서 유율 타악기로, 단순 화음 악기에서 가락악기로 점점 발전하는 단계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합주를 할 수 있다. 하승희(2004)의 연구에서 학업성적이 20%미만인 아이들 7명을 대상으로 리듬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아이들의 선택적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이 향상되었으며, 과제 수행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유효정(2006)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자폐아동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악기 연주활동을 통해 아동의 공격행동, 과잉행동 및 주의 집중행동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음악활동은 대상에게 자극을 주어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집단 음악치료는 치료사와의 관계, 그리고 치료사와의 관계 이외에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타인의 역할도 중요시 되며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이정실, 2004). 또 기악합주를 통한 직접적인 음악경험은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유도하고,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를 세울 수 있게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긴장이완과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되며, 옆 사람을 모방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습관이나 행동을 교정 받기도 하면서 부적응 동작을 제거하고, 문제해결기술을 터득할 수 있다(김태훈, 2009). 또한 자기 통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며, 문제행동을 낮춰 또래관계회복과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조은희, 2009).

2) 리코더 합주

중세시대 때 합창의 반주로 쓰이던 악기로 알려져 있는 리코더는 우리나라에서 교육목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악기이다. 현재 중학교 음악교과서 5개의 출판사에는 리코더 운지법과 연주곡이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9개의 출판사에는 박영사 출판사 1개를 제외하고, 8개의 출판사에 리코더 운지법이 수록되어있다. 반면, 대표적인 관·현악기인 플루트와 바이올린은 9개의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출판사 중 2개에만 수록되어있으며, 또 오카리나는 9개의 출판사 중 1개의 출판사에만 수록되어있다(김철홍, 2011).

리코더는 다른 관악기에 비해 소리내기가 쉽고, 간단한 운지법으로도 오선

상에 나타난 음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또 어려서부터 리코더를 통한 음악 교육이 잘 되어진 학생들에겐 다른 악기로 전향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나누어져 있는 리코더의 구성은 독주, 중주, 합주가 가능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화음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다른 가락악기와 타악기와의 합주로도 사용되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음악활동을 체험하게 한다(장인수, 2011; 최은진, 2002).

과거 학교에서는 리코더를 통해 학생들의 연주능력과 음악적 기초기능 향상을 목표로 수업하였지만 현재 교내 음악수업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였던 예전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협동으로 음악을 연주하거나 창작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임청수, 2010). 다시 말해, 불필요한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존감을 강화시키고 지지나 지원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자하는 수업형태가 현재 음악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조화와 협동을 강조하는 리코더 합주는 지휘자와의 암묵적 의사소통을 시작으로 자신의 소리를 확실히 내고 서로의 소리를 이해함으로써 그룹구성원들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서로 같은 호흡과 감정으로 하나의 목표를 완성해가는 동안 올바른 인격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우게 된다(배상열, 2006). 또한 주어진 자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지고 수행해 나아감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된다. 또 합주는 지도자 중심이 아닌 그룹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자기 주도적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의 미흡함이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중요성과 존엄성을 체득하게 되며, 자기표현과 자신감을 높여 건전한 자아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반순희, 2007).

합주곡은 그룹구성원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개별과제가 될 수 있다. 악기의 음역대와 종류별로 1파트, 2파트 형식으로 그룹을 나누어 파트연습을 진행하게 되면 집단 내 파트구성원들은 동질감을 가지게

되고 파트(Part)라 불리는 전문 집단을 형성하여 개인과 전체의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김수민, 2006).

한편, 독일의 작곡자이자 음악 교육자인 칼 오르프(Carl Orff)는 목소리뿐 아니라 다양한 신체의 소리와 리듬에 맞춘 율동을 가장 자연스러운 악기라고 강조하였으며, 학생들이 이러한 악기를 이용해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는 리듬 타악기 중심의 오르프 악기를 제작하였으며, 실로폰을 멜로디 악기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퀴트 작스(Curt Sachs)의 추천으로 리코더를 택하였다. 오르프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사용하여 앙상블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갔고 음관 악기 외에 가락 악기로서는 리코더만을 받아들였다(Orff, 1978; 김영진, 2006).

박지영(2002)은 합주활동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합주는 체계적인 지도를 받고 꾸준한 연습과 반복을 통해야만 완성되는 것이며, 청소년기의 합주활동은 삶에 있어서 소중한 음악적 체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영향을 주며, 심신 발달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발표회나 연주회를 통한 무대경험과 청중들의 박수는 자기효능감 및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김태훈, 2009).

자기조절이 능숙한 학생들은 투자하는 연습시간과 노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조절이 능숙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고 연주 실력도 월등히 높다. 동기적으로 자기조절이 이루어지고 합주가 스스로에게 성취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될 때 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합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여성혜, 2010). 이에 대해, 오윤경(2005)은 리코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리코더 연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진보와 성취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줌으로써 학생

들은 스스로 주어진 과제해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음악 목표와 음악 경험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리코더 합주활동은 학생들의 사회성 증진에도 큰 효과를 갖는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김태희(2006)는 리코더를 활용한 또래 가르치기, 파트 간 교환 중주, 그리고 연주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책임감과 준법성 등 사회성 증진에 효과적이었고 자기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최찬규(1983)는 인성 면에 있어서 사회성이 높게 측정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임은정(2005)은 리코더를 활용한 음악활동과 집단 상담을 함께 실시한 결과, 자기존중감과 사회성영역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 이주미(2005)는 리코더 교육 및 합주활동이 학생들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을 제거하고 협동적 사고 형성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ADHD아동의 과잉행동과 충동적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를 살펴보면, 리코더 합주는 ADHD아동에게 뛰어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재연(2011)은 치료사의 시범연주나 관련된 영상 시청을 통해 꾸준한 자극으로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여 주의 집중력이 길러지고, 운지법과 일치하는 음계를 기억함으로써 기억력이 향상되며, 절제된 호흡을 통해 자아통제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자리이탈 행동이 감소하고 주의산만 행동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최재익, 2009). 김은강(2005)은 리코더를 연주를 통해 아동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감소했다고 하였으며, ADHD아동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리코더 합주는 교과 교육 외에도 치료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구성원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합동연주는 더 체계적이며 또 다른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음악을 만들고 완성시켜 나간다는 경험은 학생들이 무언가를 이뤄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단순히 혼자 음악을 듣고 부르는 것보다 구성원들 전체가 하나가 될 때, 교육 및 치료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또 중도 포기하지 않고 긴 배움의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연주회를 마친 학생들의 효능감과 자신감 향상은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천시 w구 소재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보호관찰소 소장, 담당 계장과 면담 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아이들 14명을 선발하였으며, 14명의 대상자는 각각 7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 측정도구

1)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는 차정은(1996)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전체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표와 같이 3개의 구성요소로 나뉜다. 이 척도는 매우 아니다(1점), 아니다(2점), 약간 아니다(3점), 약간 그렇다(4점),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점)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R)표를 한 문항은 역 채점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을 나타낸다. 차정은(1996)의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의 신뢰도인 Cronbach는 각각 자신감 .84, 자기조절 효능감 .85, 과제난이도 .81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자기효능감 척도의 구성요소에 따른 문항번호 분류이다.

<표 III-1> 자기효능감 척도 문항 구성

구성요소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자신감	2(R), 3(R), 5, 9(R), 10(R), 12, 15(R), 16(R), 18(R), 24(R), 30	11	.615
자기조절 효능감	1, 6, 8, 11, 13, 17, 19, 20, 23, 26, 27, 28, 31	13	.617
과제난이도	4(R), 7(R), 14, 21, 22, 25, 29	7	.627
계	총 31 문항		.651

2) 문제해결력 척도

문제해결력 척도는 Maydeu-Olivares & D’Zurilla(1996)가 개정한 사회적 문제해결 도구(SPSI-R)를 최이순(2002)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문제해결력 척도는 전체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표와 같이 5개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전혀 그렇지 않다(0점), 조금 그렇다(1점), 보통이다(2점), 매우 그렇다(3점), 완전히 그렇다(4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해결 정도를 나타내는 전체 지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사회적 문제해결지수} = \frac{PPO}{5} + \frac{RPS}{20} + \frac{(40 - NPO)}{10} + \frac{(40 - ICS)}{10} + \frac{(28 - AS)}{7}$$

계산된 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좋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최이순(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해결력 전체의 신뢰도인 Cronbach는 .90이었으며, 하위요소의 신뢰도는 긍정적 문제 지향 .64, 부정적 문제 지향 .75, 합리적인 문제해결 .85, 충동-부주의 척도 .89, 회피척도 .78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과 문항번호로 나뉜 표이다.

<표 III-2> 문제해결력 척도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신뢰도
긍정적 문제 지향 (Positive Problem Orientation : PPO)	7, 9, 19, 28, 38	5	.820
부정적 문제 지향 (Negative Problem Orientation : NPO)	1, 2, 6, 12, 13, 17, 32, 36, 41, 50	10	.787
합리적인 문제해결 (Rational Problem Solving : RPS)	5, 11, 18, 20, 24, 25, 26, 27, 29, 33, 35, 37, 39, 40, 43, 44, 46, 47, 48, 49	20	.880
충동-부주의 척도 (Impulsive - Carelessness Style : ICS)	3, 4, 8, 15, 21, 22, 34, 45, 51, 52	10	.782
회피척도 (Avoidance Style : AS)	10, 14, 16, 23, 30, 32, 42	7	.764
계	총 52 문항		.925

3. 연구설계 및 절차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하였다.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을 종결한 후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사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표 III-3>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

대상자	사전조사	치료적 리코더합주	사후조사
실험집단	○ ₁	○	○ ₂
통제집단	○ ₃	×	○ ₄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 2~3회, 60분씩 총 10회기로 진행되었다. 연구 장소는 부천시 w구 보호관찰과 관내이며, 사전검사는 10월 2일 프로그램 시작 전과, 사후검사는 10월 29일 마지막 세션 종료 직후 이루어졌다.

4. 프로그램 목표 및 구성

1)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의 목표

연구자는 준비단계(1~2회기), 활동단계(3~8회기), 종결 및 변화단계(9~10회기)의 리코더 합주 활동으로 고안하였다. 전체적인 활동 내용은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토대로 실시하였으며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준비단계: 그룹 구성원 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또한 치료사와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음악적 환경에 적응한다.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의 설명과 악기연주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 동기를 갖게 한다.

활동단계: 리코더 연주기술을 배움과 동시에 그룹 구성원 간의 음악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지와 수용을 경험하고 연주의 난이도에 따라 매 시간 주어

진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긍지와 믿음을 갖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종결 및 변화단계: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단계로 그룹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완성해 놓은 기술들을 토대로 작은 음악회를 열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게 하였다.

2)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 구성

<표 III-4> 세션구성

시간	구성	활동내용
5분	인사노래	내담자와 노래로 인사를 나누고 활동을 소개한다.
10분	악기연습	악기연주에 있어서 수준에 적합한 기술을 습득한다.
40분	프로그램 활동	회기별 목표에 따라 합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분	마무리	세션을 정리하고 건의사항 및 간단한 이야기 후 인사노래로 마친다.

세션 구성 중 악기연습은 합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지법과 악상기호, 박자, 리듬, 등의 연습을 포함하였다.

3)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 내용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각 단계별 목표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활동을 구성하였다.

<표 III-5> 치료적 리코더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

단계	회기	목적	활동내용	치료적 근거
준비 단계	1	친밀감 및 관계형성, 소속감 형성	- 인사노래를 시작으로 스스로가 생각하는 리코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리코더 영상을 시청한다. - 음악 이론과 운지법을 설명한다.	· 인사노래 부르기는 그룹 구성원들과 친밀감 형성 및 소속감을 갖게 하고 사회적 교류의 동기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사회관계의 토대가 된다(이명선, 2009).
	2	음악적 환경 안에서 관계형성	- 리코더의 피스만을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 한다. - 세 파트(소프라노, 알토, 테너)가 동시에 화음 연주 하기 - 파트별로 지시에 맞추어 음계, 리듬 연주하기	· 자신을 표현하는 악기연주 활동은 음악을 창조하는 밑거름이 되며 정서를 적절히 표출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배출하고 순환된 정서를 기를 수 있다(이희정, 2006). · 화음연습은 타인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조화를 이루게 되며 서로가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고 배출하여 안정감과 균일함을 갖는다(조미나, 2011).
활동 단계	3	음악적 규칙에 따라 과제 수행, 협동심 증진	- 파트별로 지시에 맞추어 음계, 리듬악보 연주하기 - 지휘에 대한 설명 후 지휘에 맞춰 연주하기	· 그룹 구성원들이 자신의 악기를 지휘에 맞추어 연주함으로써 지휘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집중력과 자기통제를 경험하게 되며 좀 더 세밀한 표현과 음악적 느낌을 살릴 수 있다(김재원, 2009).
	4	음악적 변화에 대한 문제해결	- 곡에 대한 설명 및 토론 하기 - 곡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및 연주 <달려라 시베리아철도>	· 토의를 통해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협동심과 성취감을 동시에 기를 수 있다(김혜정, 2013).
	5	자신감 및 책임감 향상	- 타 파트의 연주 경청 및 칭찬하기 - 소프라노 파트의 멜로디 강화 연습	·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교환하며 음악적 환경에 좀 더 집중하게 된다. 연주순서를 기다리며 자기 통제와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게 된다(조은희, 2009).

	성공적인 음악경험 및 음악적 교류능력 향상	- 리코더 합주 <겨울밤, 달려라 시베리아 철도, 구름과 달음박질, 창가의 이야기, 목마의 꿈>	· 합주를 통한 성공적인 음악경험은 자기만족과 내적 자신감에 대한 감정을 자극 및 발달시킨다(김경미, 2010).
	난이도에 따른 문제해결 및 협동과제 수행	- 곡을 들려주고 그룹 구성원들과 토의하기 - 치료사가 개입하지 않고 그룹구성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찰 및 유도, 이후 치료사의 시범 연주와 파트별 연주를 통한 올바른 과제 해결 방법 지도	· 세션에 사용할 음악을 먼저 들어보는 과정은 오늘 세션을 예측하게 할 수 있고 집중 할 수 있게 하며 세션의 참여율과 흥미를 높인다. · 여러 사람의 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 가는 과정인 파트 연습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내심을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파트에 충실히 연습하는 과정은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이현숙, 2008).
	합주를 통한 자기조절 및 문제해결	- 7회기에 습득한 기술과 해결방안을 토대로 합주 및 문제 해결 <바람에 실어서>	· 합주라는 안전한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 등 긍정적 사고가 정립된다(구세롬, 2007).
종결 및 변화 단계	긍정적인 자아 확립	- 그룹 구성원들과 연주한 곡을 녹음하여 들어보면서 그 동안 자신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서로 이야기하기	·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자신의 생각을 재정립 할 수 있게 하며 서로에게 공감 및 지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김진순, 2009).
	연주회 발표를 통한 성취감 및 자기효능감 향상	- 음악회 <겨울밤, 달려라 시베리아 철도, 구름과 달음박질, 창가의 이야기, 목마의 꿈, 바람에 실어서>	· 연주회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격려, 칭찬, 인정,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주어지고 무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다(유희영, 2010).

5. 자료 분석

본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버전의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척도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집단별 평균분석과 Mann-Whitney U검정을 실시하였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척도 점수 비교분석을 위해 집단별 평균분석과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3) 실험집단 내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의 사전-사후 점수 비교분석을 위해 집단별 평균분석과 Wilcoxon 부호 순위 대응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두 집단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비교를 통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집단별 평균분석과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IV-1>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의 동질성 검정

		N	M	SD	동질성 검정	
					U	p-value
자기 효능감	실험	7	101.7	11.74	24.5	.999
	통제	7	102.6	9.00		
문제 해결력	실험	7	96.0	21.97	31.5	.383
	통제	7	105.6	18.36		

*p<.05

Mann-Whitney U 검정에서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의 p-value가 각각 p=.999와 p=.3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모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검정되었다.

<표 IV-2>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 동질성 검정

				N	M	SD	동질성 검정	
							U	p-value
자기 효 능 감	자신감	실험	7	39.0	4.73	32.0	.383	
		통제	7	47.0	7.55			
	자기조절 효능감	실험	7	41.3	5.71	15.0	.259	
		통제	7	53.6	8.96			
과제 난이도	실험	7	21.4	3.78	27.5	.710		
	통제	7	24.7	3.90				
문 제 해 결 력	PPO(긍정적 문제 지향)	실험	7	1.9	0.61	-.727	.467	
		통제	7	2.0	0.27			
	NPO(부정적 문제 지향)	실험	7	2.0	0.54	-.129	.898	
		통제	7	1.9	0.47			
	RPS(합리적 문제 해결)	실험	7	1.7	0.46	-1.092	.275	
		통제	7	2.0	0.33			
	ICS(충동-부주 의 척도)	실험	7	2.2	0.48	-.961	.336	
		통제	7	1.9	0.50			
	AS(회피척도)	실험	7	2.0	0.68	-.129	.898	
		통제	7	2.0	0.43			

*p<.05

Mann-Whitney U 검정에서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에 대한 p-value가 모두 .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 모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검정되었다

2. 가설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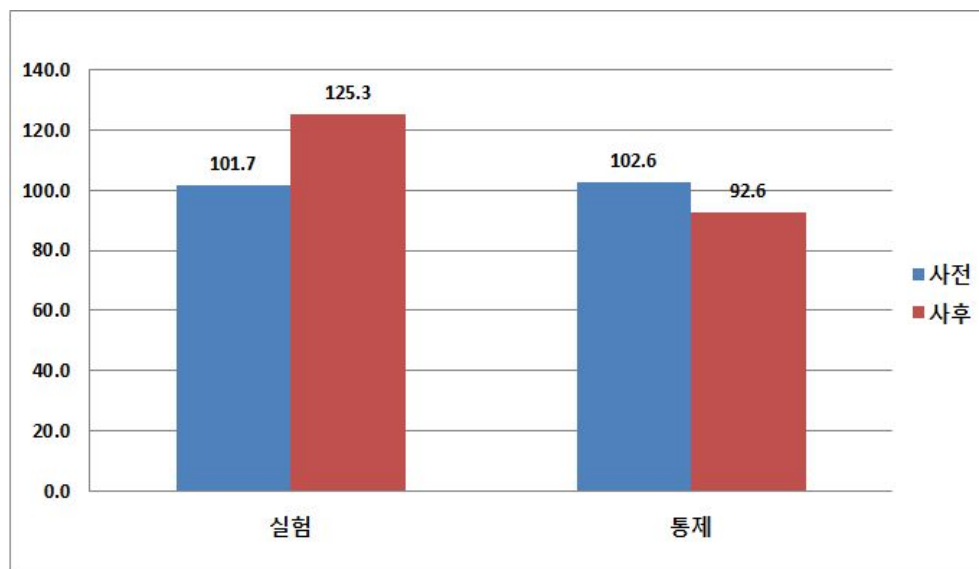
1) 제 1-1 가설 :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 보다 자기효능감 척도 점수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사전-사후 자기효능감 척도 점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분석과 Mann-Whitney U 검정이 실시되었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 자기효능감 평균분석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자기 효능감	실험집단	7	101.7	11.74	125.3	19.41
	통제집단	7	102.6	9.00	92.6	20.97

이 결과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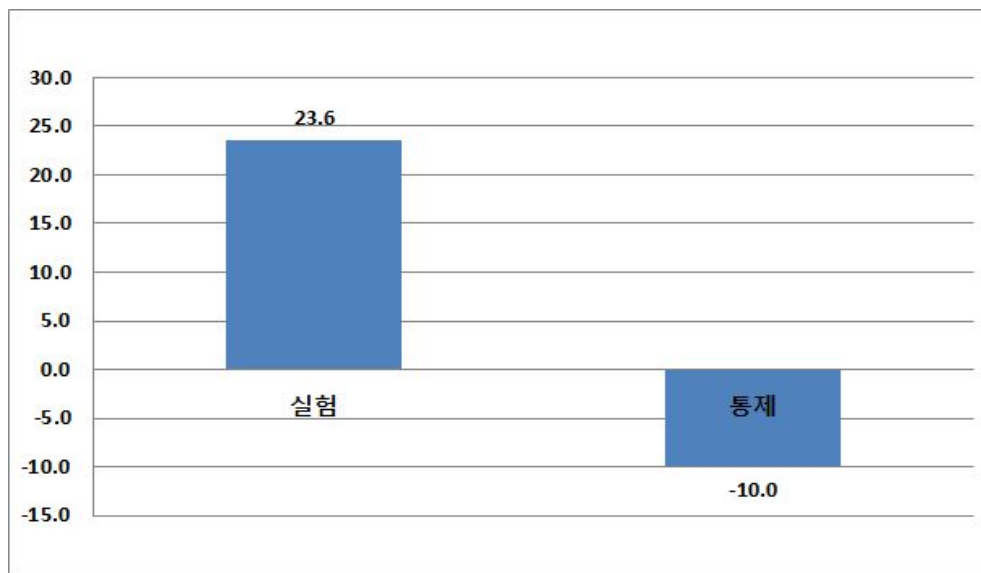
<그림 IV-1> 실험·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표 IV-4> 자기효능감 Mann-Whitney U 검정

		N	M	SD	U	p-value
자기 효능감	실험집단	7	23.6	25.25	8.50	.038
	통제집단	7	-10.0	23.61		

*p<.05

이 결과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2> 실험·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자기효능감 점수변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자기효능감 평균점수는 각각 101.7점과 102.6점, 사후 평균점수는 각각 125.3점, 92.6점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자기효능감 점수는 23.6점 증가한 반면에 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은 10.0점 감소하였다. 두 집단의 자기효능감 점수 차이를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U=8.5, p<.05). 즉, 가설 1-1은 지지되었으며,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2) 제 1-2 가설 :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자기효능감 척도 점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 내 사전-사후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Wilcoxon 대응 검정이 실시되었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5> 자기효능감 Wilcoxon 대응 검정

	N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value
		M	SD	M	SD		
자기효능감 실험집단	7	101.7	11.74	125.3	19.41	-2.644	.020

*p<.05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자기효능감 점수는 각각 101.7점, 125.3점으로 23.6점 증가하였으며, 실험집단 내 사전-사후 자기효능감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2.644$, $p<.05$).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설 1-2는 지지되었으며,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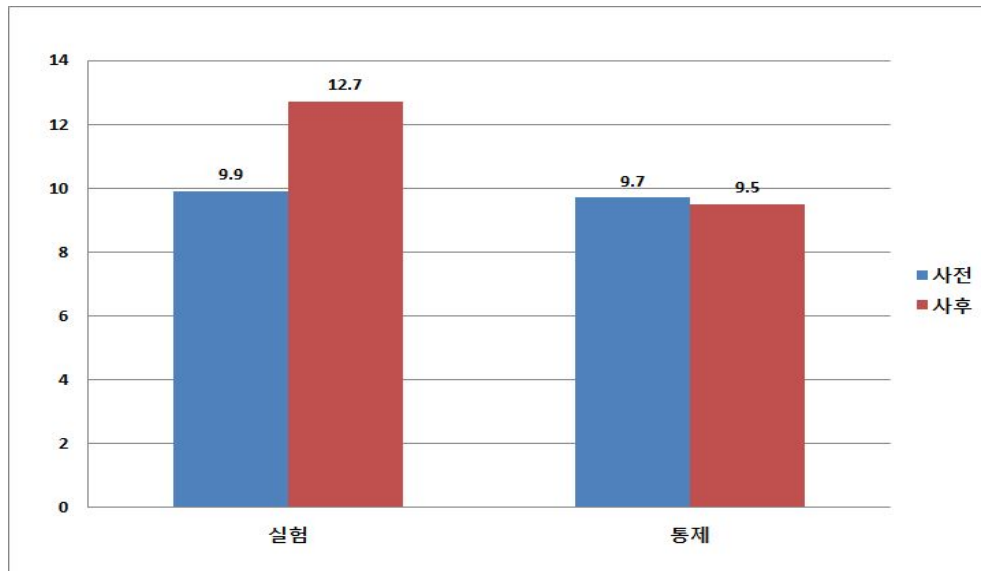
3) 제 2-1 가설 :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 보다 문제해결력 척도 점수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사전-사후 문제해결력 척도 점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분석과 Mann-Whitney U 검정이 실시되었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6> 문제해결력 평균분석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문제해결력	실험집단	7	9.9	12.7	2.60
	통제집단	7	9.7	9.5	2.01

이 결과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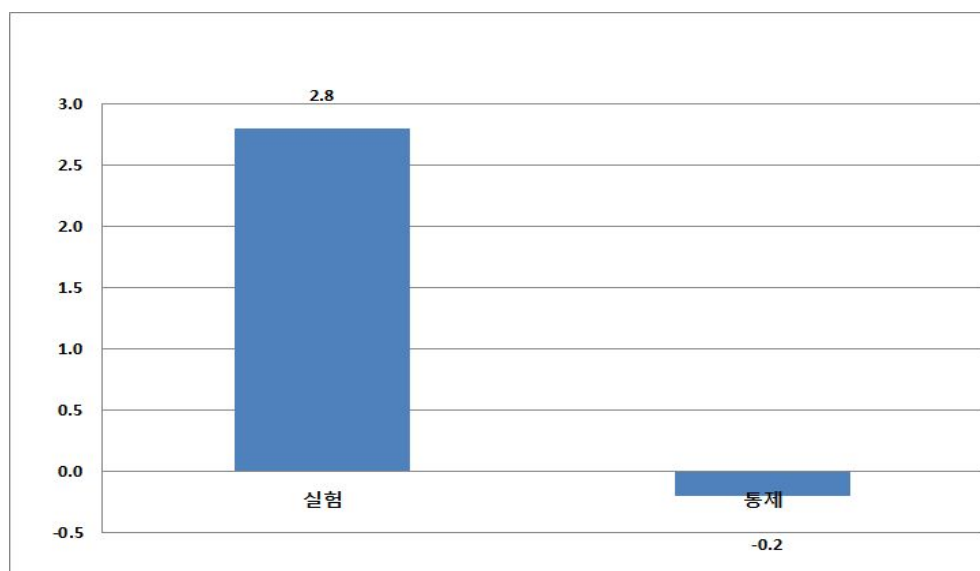
<그림 IV-3> 실험·통제집단의 문제해결력 사전·사후

<표 IV-7> 문제해결력 Mann-Whitney U 검정

		N	M	SD	U	p-value
문제해결력	실험집단	7	2.8	3.00	2.236	.025
	통제집단	7	-0.2	2.22		

*p<.05

이 결과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4> 실험·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문제해결력 점수 변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문제해결력 평균점수는 각각 9.9점과 9.7점, 사후 평균점수는 각각 12.7점, 9.5점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문제해결력 점수는 2.8점 증가하였으며, 통제집단의 문제해결력은 0.2점 감소하였다. 두 집단의 문제해결력 점수 차이를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U=-2.236$, $p<.05$). 즉, 두 집단 간의 문제해결력 점수의 변화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따라서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사전-사후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분석과 Mann-Whitney U 검정이 실시되었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8>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 평균분석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PPO(긍정적 문제 지향)	실험집단	7	1.9	0.61	2.3	0.59
	통제집단	7	2.0	0.27	1.9	0.56
NPO(부정적 문제 지향)	실험집단	7	2.0	0.54	2.8	0.68
	통제집단	7	1.9	0.47	2.1	0.62
RPS(합리적 문제 해결)	실험집단	7	1.7	0.46	2.0	0.61
	통제집단	7	2.0	0.33	1.3	0.48
ICS(충동-부 주의 척도)	실험집단	7	2.2	0.48	2.7	0.45
	통제집단	7	1.9	0.50	2.2	0.47
AS(회피척도)	실험집단	7	2.0	0.68	2.9	0.53
	통제집단	7	2.0	0.43	2.0	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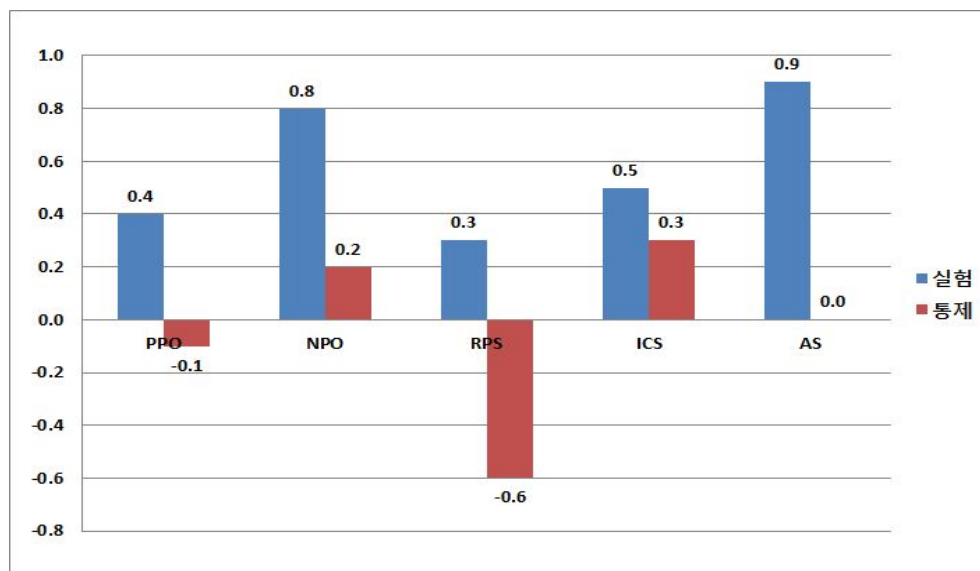
※ 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 능력이 좋은 것이다.

<표 IV-9>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 Mann-Whitney U 검정

		N	M	SD	U	p-value
PPO	실험집단	7	.4	1.14	1.357	.175
	통제집단	7	-.1	.66		
NPO	실험집단	7	.8	.69	2.051	.040
	통제집단	7	.2	.88		
RPS	실험집단	7	.3	1.00	1.535	.125
	통제집단	7	-.6	.51		
ICS	실험집단	7	.5	.63	1.613	.107
	통제집단	7	.3	.75		
AS	실험집단	7	.9	.46	2.511	.012
	통제집단	7	.0	.51		

*p<.05

이 결과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 영역 능력이 좋은 것이다.



<그림 IV-5> 실험·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문제해결력 하위 점수변화

첫째, 우선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PPO 점수는 0.4점 증가한 반면에 통제 집단의 PPO 점수는 0.1점 감소하였다. 두 집단의 PPO 점수 차이를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U=1.357, p>.05$).

둘째,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NPO 점수는 0.8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NPO 점수는 0.2점 증가하였다. 두 집단의 NPO 점수 차이는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U=2.051, p<.05$).

셋째,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RPS 점수는 0.3점 증가한 반면에 통제집단의 RPS 점수는 0.6점 감소하였다. 두 집단의 RPS 점수 차이를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U=1.535, p>.05$).

넷째,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ICS 점수는 0.5점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의 ICS 점수는 0.3점 증가하였다. 두 집단의 ICS 점수 차이를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U=1.613, p>.05$).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AS 점수는 0.9점 증가하였으나, 통제 집단의 AS 점수는 변동이 없었다. 두 집단의 AS 점수 차이를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U=2.511, p<.05$).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 중 차이를 보인 것은 NPO와 AS이다. 즉,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이 문제해결력의 NPO와 AS에 영향을 보여주며, 가설 2-1을 지지하고 있다.

4) 제 2-2 가설 :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문제해결력 척도 점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 내 사전-사후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Wilcoxon 대응 검정이 실시되었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0> 문제해결력 Wilcoxon 대응 검정

		N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value
			M	SD	M	SD		
문제해결력	실험집단	7	9.9	1.28	12.7	2.60	-2.690	.009

*p<.05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문제해결력 점수는 각각 9.9점, 12.7점으로 2.8점 증가하였으며, 실험집단 내 사전-사후 문제해결력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2.690, p<.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가설 2-2을 지지한다. 즉, 치료적 합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문제해결력 척도 점수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다음은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문제해결력 하위요인 점수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Wilcoxon 대응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IV-11>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 Wilcoxon 대응 검정

		N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value
			M	SD	M	SD		
PPO	실험집단	7	1.9	0.61	2.3	0.59	.933	.351
NPO	실험집단	7	2.0	0.54	2.8	0.68	2.028	.043
RPS	실험집단	7	1.7	0.46	2.0	0.61	.676	.499
ICS	실험집단	7	2.2	0.48	2.7	0.45	1.947	.051
AS	실험집단	7	2.0	0.68	2.9	0.53	2.366	.018

*p<.05

※ 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 능력이 좋은 것이다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PPO 점수는 각각 1.9점, 2.3점으로 0.4점 증가하였으나, 실험집단 내 사전-사후 PPO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Z=.933, p>.05$).

둘째, NPO의 사전-사후 점수는 각각 2.0점, 2.8점으로 0.8점 증가하였으며, 실험집단 내 사전-사후 NPO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Z=2.028, p<.05$).

셋째,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RPS 점수는 각각 1.7점, 2.0점으로 0.3점 증가하였으나, 실험집단 내 사전-사후 RPS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Z=.676, p>.05$).

넷째,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ICS 점수는 각각 2.2점, 2.7점으로 0.5점 증가하였으나, 실험집단 내 사전-사후 ICS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Z=1.947, p>.05$).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AS 점수는 각각 2.0점, 2.9점으로 0.9점 증가하였으며, 실험집단 내 사전-사후 AS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Z=2.366$, $p<.05$).

문제해결력의 NPO와 A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따라서 치료적 합주 프로그램이 NPO와 AS의 점수를 감소시켜줌으로 문제해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천시 W구에 위치한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 14명을 각각 실험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으로 구성하였다.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은 1회에 60분씩 총 10회 세션 구성으로 주 2회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양적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시작 전과 종결 후에 자기효능감 척도와 사회적 문제 해결 척도검사를 시행하여 사전·사후의 차이를 검증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자기효능감 평균점수는 23.6점 증가한 반면에 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은 10.0점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가설 1-1과 1-2는 지지되었으며,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문제해결력이 향상되었다.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문제해결력 점수는 평균점수는 2.8점 증가한 반면에 통제집단의 문제해결력은 0.2점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 문제해결력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인 긍정적 문제 지향, 부정적 문제 지향(역), 합리적 문제해결, 충동-부주의(역), 회피(역) 영역에서는 각각 0.4점, 0.8점, 0.3점, 0.5점, 0.9점이 향상되

어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하위영역은 부정적 문제 지향과 회피영역이다. 따라서 가설 2-1과 2-2는 지지되었으며,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적 음악활동 개입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발달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김선미, 2005; 차은성, 2007; 구세롭, 2007; 한상철, 조혜련, 2004)와 일치하며, 음악활동이 문제해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문지영, 권영혜, 2009)와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세션 초기에는 자리이탈 등을 비롯한 부정적 행동이 관찰되었지만 리코더 동영상 시청과 보조교사의 도움을 통해 합주형태로 자리잡아가게 되었으며, 중반 이후 하나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의 점검을 반복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10회기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향상이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리코더 학습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만약 리코더가 익숙하지 않은 악기이고 운지법을 새로 익혀야하는 어려운 악기였다면 아이들은 중도 포기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룰 줄 아는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리코더 합주를 시행하여 사회성이나 음악성이 향상되었다는 연구는 많지만 비행청소년에게 리코더 합주를 시행한 음악치료 연구는 현재까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에게 리코더를 사용하여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치료도구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치료적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은 상담이나 주입식 강의만으로 이루어진 보호관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비행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하고 올바른 자기효능감을 갖게 함으로써 더 나은 삶과 재비행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자료로서의 리코더 활용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치료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리코더의 장점과 다양한 효과성이 입증되었지만 국내에 리코더에 관한 관련 서적과 참고 자료 또한 부족하기에 후속연구에서는 리코더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기법들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연구 집단이 각 7명이라는 적은 인원수로 진행되었기에 본 연구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합주인원을 늘리고 타악기나 리듬악기를 첨부하여 좀 더 확장된 연구를 하여 치료효과 검증에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회기가 총 10회기로 아이들이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거나 음악적 요소를 모두 흡수하기에는 적은회기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는 좀 더 장기적으로 회기를 구성하여야 하며, 회기 전 리코더교육을 몇 차례 실시하는 것도 합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강진령, 유형근 (2000). 집단괴롭힘. 서울: 학지사.
- 강창빈 (2007).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현주 (2012).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지역요인과의 관계.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581-603.
- 강희숙 (2004). 리코더 앙상블 지도를 위한 자료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곽금주,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 문화의 형성요인 탐색 : 비행과 우울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5(1), 111-121.
- 구새롬 (2007). 우울 성향 여중생 블루스 음악형식을 활용한 자기효능감 증진 연주활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경미 (2010). 오카리나 연주를 통한 자아존중감 형성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경희 (1998).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 서울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명한, 한길환 (2001). '합창과 인성교육' : 합창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정담론, 5(2), 267-292.
- 김석권 (2011).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 김선미 (2005). 가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활동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선하 (2009). 리듬악기합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 11(1), 49-59.
- 김수민 (2006). 합주부 활동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아진 (2009). 효과적인 리코더 지도 방법 연구 : 합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용구 (2014).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요인과 자기효능감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은강 (2005). 리코더 연주 활동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13(1), 99-142.
- 김인숙 (2014).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디지털정책연구**, 12(5), 479-490.
- 김재원 (2009). 리듬 합주 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박정선, 이동원, 박철현. (2009).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진순 (2009). 그룹바이올린 연주가 실업계 여고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철홍 (2011).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9종 음악교과서 비교 분석: 기악영역중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태훈 (2009). 중학교 관악합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태희 (2006). 협동적 리코더 활동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 자신

- 감 및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혜경 (2007).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김혜영 (2001).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분위적인 긍정적 착각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혜정 (2013).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문지영, 권영혜 (2009). 인지행동적 음악치료활동이 알코올 중독자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단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 10(1), 107-118.
- 박영신, 김의철 (2000). 사회문제 :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인간관계와 심리 행동특성의 차이. **연차학술발표대회**, 2000, 88-89.
- 박영신, 김의철 (2001). 위탁청소년과 중 고등학생의 학교폭력행동 및 관련 변인 비교 분석. **한국심리학회**, 15(2), 25-52.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심리 행동 특성 비교: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12(2), 45-76.
- 박인수 (2004). 기악합주가 정인지체아의 사회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지영 (2002). 합주 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진아 (1999). 음악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폐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반순희 (2007). **리코더 합주부의 연주기능 신장 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범죄예방정책국 (2011). 보호관찰 사건현황.
- 범죄 예방정책국 보호관찰. www.cppb.go.kr 2014년 5월 18일 검색.
- 배상열 (2006). **음악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리코더 앙상블의 표현능력 신장 : 3-6학년 리코더합주부를 운영하며**. 석사학위논문. 경
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덕규 (2012). **중학교에서의 리코더 합주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사진편찬위원회 (1991). **음악용어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송지영 (2005). **현실상담을 적용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문
제해결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
학원.
- 안명선 (2008). 아동, 청소년상담 : 현실요법적 놀이치료 프로그램이 비행청
소년의 공격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9(1),
221-236.
- 엄미혜 (2013). **기악합주가 정인지체 학생의 사회정서행동과 운동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여성혜 (2010). **Arts PROPEL을 적용한 관현악 합주 수업이 중학생의 기
악연습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윤경 (2005). **협동학습을 통한 리코더 수업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 연
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인수 (2002). 일반적 자기효능감 : 개념, 측정관련 이슈와 인적자원관리 측
면의 시사점. **한국심리학회**, 15(3), 49-72.

- 유효정 (2006). 자폐아의 타악기 연주 활동이 주의집중과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희영 (2010). 관현악 합주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 연구: 중학교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광희 (2002).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미연 (2005). 초등학교 기악 합주활동이 음악 표현 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명선 (2009). 노래 중심의 음악치료가 사할린 귀환동포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이선미 (2004). 음악활동이 정인지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성식 (2011). 청소년 비행과 범죄연구. 서울: 청목출판사.
- 이유미, 김정희, 김동원 (2009). 아동, 청소년상담 : 인지적 대인관계 문제해결 훈련이 결손가정 초등학생의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302-2319.
- 이재경 (2000). 비행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훈련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93-211.
- 이재연 (2011). 리코더 연주활동이 ADHD 아동의 주의산만과 충동성감소에 미치는 영향. 학습전략중재연구, 2(1), 105-126.
- 이주미 (2005). 모듬별 리코더 협동학습을 통한 수업지도 방안 연구 :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주연 (2006). 오르프음악치료활동이 정인지체 청소년의 인지능력 및 운동능력 향상에 미치는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 이춘재 (1999).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1999, 9-23.
- 이호동 (2010). 자립의지증진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립의지 및 자아효능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이현숙 (2008).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 사회적지원, 성격 및 자기효능감과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희정 (2006). 보호관찰 청소년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평가. *진리논단*, 1(13), 287-305.
- 이희진 (2009). 음악치료사의 개인적배경, 자기 효능감 및 사적 자의식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 11(1), 18-39.
- 임상곤 (2004). *범죄심리학원론*. 서울: 백산출판사
- 임은정 (2004). 음악활동과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 자신감, 및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청수 (2010). 리코더 합주지도에서 협동학습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인수 (2011). 리코더 지도의 효율적인 학습 방안 연구 :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익진 (2014). 통합예술치료가 학교생활부적응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윤식, 강영심 (1987). 대인문제해결능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연구보*, 23(1), 47-74.
- 정은나 (2006). 중학교 남학생의 음악교과 인식변화를 위한 지도방안 : 중학교 1학년 기악합주 수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현숙 (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발달수준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미나 (2011). 리코더 연주활동이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은희 (2009). 집단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 : 플루트 앙상블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조재민 (2013). 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리코더 교육방법에 따른 연구 : J. S. Bach의 Minuet in G Major BWV Anh.114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조준현 (1999). 범죄원인론에 관한 사회해체론과 아노미(anomie) 이론 : 사시·행시 1차시험대비 Study(형사정책). 고시계, 44(12), 130-143.
- 차은성 (2007). 집단음악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차정은 (1996).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심리연구, 34, 19-31.
- 최광성 (2006). 사회적 유능성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최성주 (2007). 리코더 연주를 통한 뇌졸중 노력성 폐활량과 호흡 효율성 향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은진 (2002). 초등학교 3학년을 위한 리코더 지도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이순 (2002). 사회적 문제 해결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 21(2), 413-428.

- 최재익 (2009). 리코더 연주활동이 ADHD 아동의 주의산만행동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찬규 (1983). 특별학습활동 학생과 일반학습활동 학생과의 음악재능 및 인생의 비교연구 : Recorder 활용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하승희 (2004). 리듬활동을 이용한 과제수행력 증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소년법학회 (2006). 소년법. 서울: 세창출판사.
- 한상철, 조혜련 (2004).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실업계고등학교 내 학업부진아의 학교생활적응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미래청소년학회, 1(1), 39-54.
- 허남조 (2006). 문제중심학습(PBL)이 문제해결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자선 (2008). 효과적인 리코더 지도를 위한 연구 및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영랑 (2005). 리코더 레슨활동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andura, A. (1995). Self 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윤운성 (역).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서울: 학지사(2004).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 서울: 교육과학사(1999).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박영신, 김의철 (역).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 교육·건강·운동·조직에서의 성취*. 서울: 교육과학사(2001).
- Brown, I. J., & Inouye, D. K. (1978). Learned helplessness through modeling: The role of perceived similarity in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900-908.
- D'Zurilla, T. J., & Goldfried, M. R. (1971). Problem solving and behavior modif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8, 107 - 126.
- Orff, Carl. (1978). Carl Orff und sein Werk. 김영진 (역). *칼 오르프 술페르크*. 서울: 음악세계(2006).
- Greening, L. (1997). Adolescent stealers' and nonstealers'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dolescence*, 32, 51-55.
- Jaffe, W. B., & D'Zurilla, T. J. (2003). Adolescent problem solving, parent problem solv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in adolescents. *Behavior Therapy*, 34, 295-311.
- Kagan, Spencer. (1992). Cooperative learning(paperback). 기독교초등학교 협동학습연구모임 (역). *협동 학습*. 서울: 디모데(1999).
- Maydeu-Olivares, A., & D'Zurilla, T. J. (1996). A factor-analytic study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an integration of theory and dat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 115-113.
- McMurrin, M., Blair, M., & Egan, V. (2002). An investigation of the correlations between aggression, impulsiveness, social problem-solving, and alcohol use. *Aggressive Behavior*, 28, 439-445.

- Meichenbaum, D. H. (1971). Examination of model characteristics in reducing avoidanc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298-307.
- Ronald, M. Borczon. (1997). Music therapy : group vignettes. 이정실 (역). 집단음악치료: 실제 집단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2004).
- Schunk, D, H. (1984). Sequential attributional feedback and children's achievement behavio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1159-1169.
- Thomas, J. D'Zurilla., & Arthur, M. Nezu. (2006). Problem-solving therapy : A positive approach to clinical intervention. 박권생, 최이순 (역). 문제해결요법: 임상적 개입에의 적극적 접근. 서울: 학지사 (2008).

Abstract

The Effects of Therapeutic Recorder Ensemble in Improving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Ability for Youths under Probation.

Lee, Seung Min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rapeutic recorder ensemble in improving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ability for adolescences under probation. The subjects were a total of 14 adolescences who were put on probation at a probation office in W District of Bucheon city. Among them, half of the subjects were assign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half into a control group. According to the teachers in the probation office, these 14 adolescences have been imprisoned an average of 4 times and most of them dropped out of middle school. This program was conducted 10 times, 2 to 3 times a week, and an hour per time, from the period of October 2 to October 29 2014. It was also conducted pre- and post-tests

using index of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ability to figure out how this therapeutic recorder ensemble affects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ability for adolescences under probation. The study materials were analyzed through Mann-Whitney test and Wilcoxon signed-rank test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therapeutic recorder ensemble.

The musical therapy mainly involves recorder ensemble to build relationship in the musical environment, engage in task performance and problem-solving according to the musical variation and level of difficulty, improve self-confidence and responsibility, and provide successful musical experience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re have been meaningful statistic outcomes that the score of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the pre- and post-test for those of experimental group who joined the therapeutic record ensemble program has increased compared to those of control group. This implies that the therapeutic recorder ensemble is a effective tool for mediating that can improve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ability for adolescences who were put on probation.

부 록

<부록 1> 자기효능감 척도

<부록 2> 사회적 문제해결력

<부록 1> 자기효능감 척도

이름:

나이:

이 검사지는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양한 상황을 나타내는 여러 문장들이 실려 있습니다. 각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그 문장의 내용이 “나 자신을 잘 나타내는지”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지”를 판단하여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하십시오. 여러분의 응답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읽어 보시고 한 문장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 항 내 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2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함을 느낀다.						
3	나는 복잡한 일은 잘 파악할 수 없다.						
4	나는 어떤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5	나는 위험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						
6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7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8	나는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9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10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문 항 내 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마음만 먹으면 과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						
12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3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4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이다.						
15	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이상으로 받는다.						
16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17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만큼 잘 할 수 있다.						
18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19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20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21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22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23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24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25	나는 관심 있는 일은 꼭 하는 편이다.						
26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문 항 내 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7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잡는다.						
28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9	아주 쉬운 일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30	위험상황에 부딪혀도 별로 당황하지 않는다.						
31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한다.						

<부록 2> 사회적 문제해결력 척도(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SPSI-R)

이름: 나이:

다음에 나오는 글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으시고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잘 생각하여 아래의 숫자들 중 하나를 골라서 표시 하십시오. 요즘 생활하면서, 당신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생각해 보신 후 해당 칸에 표시하면 됩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					
2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3	결정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을 조심스럽게 확인하지 않는다.					
4	결정을 할 때 각 각의 해결책이 다른 해결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					
5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시켜 본다.					
6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 자신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한다.					
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에는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8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맨 먼저 떠오른 생각대로 행동한다.					
9	나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0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해 보기 전에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지 보려고 기다린다.					
11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한다.					
1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을 때 나는 매우 좌절 한다.					
13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의심스럽다.					
14	문제 해결을 가능한 한 뒤로 미룬다.					
15	어떤 해결책이 얼마나 잘 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					
16	문제 해결을 회피하기 위해 그 문제가 아닌 다른 일을 한다.					
17	어려운 문제들은 나를 아주 기가 죽게 만든다.					
18	결정을 할 때 각 해결책의 앞뒤를 예측해 보려고 한다.					
19	가능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20	문제에 대해 창의적이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생각하려고 한다.					
21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맨 처음 떠오른 좋은 생각을 따른다.					
22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생각나지 않는다.					
23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회피한다.					
24	결정을 내릴 때 각 해결책의 단기적인 결과와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한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25	해결책을 쓰고 난 뒤에 잘되어 가는 것과 잘 못 되어가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확인을 한다.					
26	문제 해결을 해보고 나서 나의 기분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알아보는 확인을 한다.					
27	해결 방법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 해결 방법을 연습해 본다.					
28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한다면 어려운 문제들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29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사실을 모은다.					
30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문제 해결을 미룬다.					
31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32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심란해서 생각을 분명하게 할 수가 없다.					
33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도록 목표를 먼저 세운다.					
34	결정을 할 때 각각의 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내지 않는다.					
35	문제를 해결하기에 실패했을 때 잘 못된 것을 찾아내고 나서 다시 시도한다.					
36	문제를 해결하기가 싫다.					
37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문제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보기 위해 확인한다.					
38	나의 문제를 도전해 볼만한 것으로 보려고 한다.					
39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한다.					
40	결정을 할 때 각 결정의 결과를 가늠해 본다.					
41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42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간다.					
43	결정을 할 때 각 해결책의 결과들이 나의 감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한다.					
44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이유가 될지도 모르는 것들을 나의 주위에서 찾는다.					
45	결정을 할 때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감에 따라 한다.					
46	결정을 할 때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47	문제를 해결 할 때 목적을 항상 염두해 둔다.					
48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					
49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내려고 한다.					
50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노력이 실패했을 때 힘이 빠지고 우울해진다.					
51	해결 방법이 왜 잘 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는다.					
52	결정을 할 때 마음이 너무 급해서 행동하기가 어렵다.					